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첫날 매장 가 보나...

보조금 혜택 줄어 소비자들 발길 '뚝'

스마트폰 가격 일제히 올라 누리꾼들 "기업 위한 악법"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첫날인 1일, 인터넷이 들끓었고, 휴대폰 매장은 발길이 끊겼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혜택을 고르며 부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이지만, 사실상 보조금 규모가 예전보다 줄어 소비자에게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5면〉

이날 누리꾼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분노에 가까운 게시물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모두가 손해보는 법'이 탄생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조롱했고, '정부

가 대기업 이익 보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짐을 지었다'는 비난도 속출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신 스마트폰의 실제 구입가격은 하루 전보다 일제히 상승했다. 가장 최신 기종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이통 3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6만~7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면 8만~9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 노트4를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85만원을 내야 단말기 구입이 가능해졌다. 반면, 법 시행 전 3개월만 회선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면 요금제와 상관없이 70만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광주 동구 충장로

에 밀집한 휴대폰 매장들도 이날 전례 없이 한산한 분위기였다. '스마트폰 최고할인' 등의 고객유인 플래카드는 여전히 매장마다 붙어있었지만, 갖춰놓은 상담석은 오랜 시간 비어 있었고, 매장 직원마저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

A 매장 직원은 "오늘 휴대폰을 물어보러 온 손님이 단 1명도 없었다"며 "3년 정도 자리를 지켜왔는데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B 매장 직원은 "평소와 비교해 손님이 20% 수준에 그쳤다"고 혀를 내두르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고객도, 휴대폰 판매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기업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보조

금 혜택도 줄었을 뿐더러, 혜택을 받으려면 약정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요즘 누가 24개월을 채워 쓰나"며 "정부가 휴대폰 유통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시장이 당분간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신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출시 기간이 오래된 기종의 보조금마저 예상을 밑돌기 때문이다. C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7일마다 변경되는데, 단말기 지원금을 얼마를 지급할 지 눈치보기에 나선 이통사들이 현재 크게 늘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연말께 아이폰 6 등 최신 휴대폰이 출시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1.54 (-28.55)	▼ 금리 2.22%(-0.08)
▼ 코스닥 566.99 (-6.23)	▲ 환율 1062.70원(+7.50)

외국인 '팔자' 공세에 기업 실적 부진 겹쳐

코스피 2000선 붕괴

코스피가 2개월여만에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을 내렸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더기 '팔자'에 나선 것이 지수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엔화 약세,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반복적으로 제기된 대외 약세에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55포인트(1.41%) 내린 1991.5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증가 기준으로 20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7월14일 이후 약 2개월 반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5원 오른 1062.07원으로 마감했다. 세계적 달러 강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더해지면서 약 6개월 만에 1060원 지지선이 뚫린 것이다.

2000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업종 대부분이 내림세를 기록하며 예상을 밑나가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거듭 상승세를 타오던 증권업종마저 전일대비 3.75%가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철강금속(-2.94%), 의료정밀(-2.44%), 전기전자(-2.19%), 기계(-2.17%), 은행(-2.15%) 등이 2%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통신업종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힘입어 1%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가 2.36% 하락하면서 115만원대로 거래를 마쳤고, POSCO도 중국 경기 부진 우려로 인해 철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대로 하락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도 1~2%대로 하락했다.

코스피 2000선 붕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율과 실적 등 복합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이슈가 나와 시장을 압박했다기보다는 꾸준히 제기되던 여러 요인이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업 실적 우려가 2000선 하회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국경기지표 악화과 환율로 인한 대표 수출주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다소 반등하며 부담감은 어느 정도 덜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세가 이미 예상됐던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상승 동력도 없어 한동안 조정 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 약세가 예상된 만큼 추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2000선이 빠르게 붕괴됐고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힘입어 1%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1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코스피 증가가 뜬 스크린 앞을 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이 지수에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55포인트(1.41%) 내린 1991.54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기아차 파업 지역경제 부담... 합의해야"

광주상의, 촉구 성명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1일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중단과 노사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성명에서 "기아차 노사간 임금교섭 난항과 파업 장기화는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가 양보와 타협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선진국의 경기 회복 지연과 환율 하락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국내 실물경제 침체마저 계속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기업들 또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지역 경제의 한 축인 기아차 광주공장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특히 지난해 연간 62만대 생산체제를 갖춤에 따라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나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 제조업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차례의 부분 파업과 전업 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 대외 신인도 하락, 250여 협력사들의 경영난 가중 등 문제"라며 "파업을 풀고 노사가 양보와 타협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exian@

광주·전남 9월 소비자물가 동반 상승

광주 1.4%, 전남 0.7% ↑

광주와 전남지역 9월 소비자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1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9월 중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는 1.4%, 전남은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2(2005년 기준=100)로, 전월 대비해서는 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8.31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농축수산물물은 0.8% 하락했으나 공업제품은 0.8%, 서비스는 2.0% 각각 상승했다. 토마토가 35.0% 급등한 것을 비롯, 풋고추(24.4%), 치약(19.9%), 배추(16.8%), 당근(11.3%), 파(10.4%)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세탁제(22.6%), 포도(-11.0%), 삼푸(-9.6%) 등은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09.30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7%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108.98로 지난해 9월보다 0.3% 올랐다. 1년 전에 비해 농축수산물물은 3.0% 하락한 반면 공업제품은 0.4%, 서비스도 1.4% 상승하며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소폭 올랐다. 전년 대비 풋고추가 31.7%, 토마토가 28.5% 오른 것을 비롯해 당근과 상추, 감자, 버섯, 배추, 호박 등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참기름(-8.3%), 감치(-7.7%), 닭고기(-7.4%), 포도(-7.0%) 등은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은-무역보험공, '중기 단체보험계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광주·전남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1년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미화 5만 달러까지 담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에 가입한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상하여 줌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계속 기업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은행은 거래중인 수출중소기업에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그 결과 82개 지역 중소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 가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안홍준 광주전남지



광주·전남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Plus+ 단체보험' 주은행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6여행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은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